

국립돌기사

김도중 원광대학교 총장
대학가상교육연합 회장 선출

김도중(사진) 원광대학교 총장이 제8대 한국대학교상교육연합 회장으로 선출됐다. 회장선거에서 김도중 총장은 민장 일지로 회장에 선출됐으며, 12월 24일부터 2년 동안 연합회를 이끈다.



한국대학교상교육연합은 대학 간 학점 교류를 목적으로 1997년 출범해 전국 82개 대학이 회원교로 참여하고 있으며, 인터넷을 활용한 수준 높은 강의를 제공하고, 회원대학 간 학점교류를 도입 등 원격교육의 매우 성공적인 사례로 인정 받고 있다.

김도중 신임회장은 "한국대학교상교육연합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원격교육 기관으로 발전시키는 한편 회원교들의 온라인교육 역량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온라인 공동교육 학점교류 활성화, 군복무 중 학점취득 활성화, 공동교육 질 관리 강화 LMS호스팅서비스 이용 장려 등 연합회 발전을 위한 과제들을 회원교의 관심과 협력을 바탕으로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익산=정양원기자

군산농기술센터, 강소농 모집

군산시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가 작지만 강한 강소농 육성을 위해 관내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강소농을 모집한다.

강소농 사업은 경영규모는 작지만 강한 경쟁력을 지닌 농업경영체를 발굴하여 농업경영개선과 자립역량을 강화시키고, 이를 통해 현재의 농가소득이 10% 이상 향상되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강소농 교육은 기본·심화·후속교육 등으로 진행되며, 참여 농업인들이 생산한 농산물의 '비·폴·고·가·역' 즉 비용절감, 품질향상, 고객확대, 가치향상, 역량개발 실천을 위해 참여식 교육으로 진행된다.

신청대상은 군산시에 거주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경영체로 대상자 확정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제시하는 강소농 기본교육 필수과정 이수 후 확정된다.

신청기간은 27일부터 내달 6일까지이며, 군산시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또는 각 읍면동 농민상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강소농 모집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또는 경영교육계(454-5241~3)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군산시농업기술센터는 지난 2011년부터 현재까지 총 690명의 강소농을 선정 육성한 바 있다.

/군산=문정곤기자

익산, 새터민 송년의 밤 행사 개최

새터민들과 함께하는 송년의 밤 행사가 북한이탈주민과 가족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6일 익산 연리지 웨딩홀에서 개최됐다.

익산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위원장 최병모) 주관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고향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간직한 채 삶을 살고 있는 새터민들을 위로하고 주민간 교류와 화합의 정을 돈독히 하고자 마련됐다.

식전행사로 가수들의 축하공연이 펼쳐지고 기념식에서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에 기여한 유공자들을 격려하고 표창장을 전달했다.

이어서 진행된 레크레이션과 다양한 문화공연을 직접 참여하고 즐기면서 새터민들은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행사에 참석한 새터민 김씨는 "연말이라 고향에 두고 온 부모형제가 더 보고 싶어 외롭고 쓸쓸했는데 송년의 밤 행사를 열어 줘 고맙다"며 "항상 가족처럼 따뜻하게 보살펴 준데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더욱 열심히 살겠다"고 말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낯선 남한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익산=정양원기자

군산시희망복지지원단

복지사각지대 발굴 '앞장'

내년 2월 28일까지 동절기 취약계층 집중 발굴기간 정하고 현장행정

군산시희망복지지원단이 보건복지부와 함께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사회복지공무원 및 통·리·반장 등은 지난 11월 2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동절기 취약계층 집중 발굴기간으로 정하고 현장행정을 통한 지역 내 사각지대를 찾아 나서고 있다.

특히 보훈료 체납자, 단전·단수가구, 복지급여 신청 후 탈락가구 등을 집중 조사 중에 있다.

이를 통해 대상자를 발굴해 긴급지원, 기초생활보장제도, 민간후원 등 공공·민간지원으로 연계하고 있으

며, 시민들을 대상으로 현수막 게시, 대형 전광판 게시 등 다양한 홍보에 나서고 있다.

또 갑작스럽게 위기상황에 처했으나 제도를 알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시민들을 위해 관내 도심공원을 찾아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발굴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밖에도 역·터미널 주변, 교각 아래, 폐가 컨테이너 등에서 생활하는 대상자를 찾아 나서고,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을 활용한 위기가구 예측시스템을 가동하여 위기 사유별 선제적 예방활동도 펼치고 있다.

최성근 군산시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이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지 않도록 현장을 직접 찾아 대상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희망복지지원단은 읍면동 사회복지공무원 및 복지이동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관 재가복지센터, 방문형 서비스기관 등 민관협력 뿐만 아니라 수도 가스 전기 검침원, 우체국 집배원 등 가가호호 방문하는 기관을 통해서도 지역 내 사각지대를 중점 발굴한 바 있다.

/군산=문정곤기자



군산 서수면 '보천사' 전통사찰 지정

문화체육관광부 자문위원회의 심의 거쳐

군산시 서수면에 위치한 대한불교 조계종 보천사가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문화체육관광부 전통사찰 지정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6일 전통사찰로 지정됐다.

전통사찰은 사찰들 중 역사적으로 시대적 특색을 뚜렷하게 지니고 있거나 한국 고유의 불교·문화·예술과 건축사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민족문화의 유산으로서 의의를 가진 사찰을 말한다.

보천사가 전통사찰로 지정됨에 따라

군산시에 소재한 전통사찰은 총 7곳(은전사, 상주사, 불주사, 성흥사, 지장암 운심사)으로 늘어났다.

보천사는 백제 무왕 2년(602년) 신라 고승 혜공대사에 의해 700여 평에 이르는 큰 규모로 창건됐다.

그 후 고려시대에는 공민왕 2년(1352년)에 나옹대사가 보천사를 중창하고 조선시대에는 고승 취계담사가 중수했던 군산의 3대 사찰 중 한 사찰로 법맥을 이어온 유서 깊은 사찰이었으나 1924년 일제에 의해 폐

사된 아픔을 가진 사찰이다.

당시 일본인들은 장비를 동원해 보천사의 여러 건물을 해체하여 부산을 거쳐 일본으로 옮겨 갔다고 하며, 불상은 부산에서 반송되어 지금은 익산 웅포면 송림사에 있는 나한전에 모셔져 있다. 일제강점기 폐사됐던 보천사는 1986년 백나도가 옛 절터 옆 언덕에 중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깊은 역사를 간직한 보천사의 전통사찰 지정은 큰 의미가 있다"며 "이곳 사찰이 한국 불교문화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보존 계승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군산=문정곤기자

군산시희망복지지원단,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발굴 앞장

군산시희망복지지원단이 보건복지부와 함께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사회복지공무원 및 통·리·반장 등은 지난 11월 2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동절기 취약계층 집중 발굴기간으로 정하고 현장행정을 통한 지역 내 사각지대를 찾아 나서고 있다.

특히 보훈료 체납자, 단전·단수가구, 복지급여 신청 후 탈락가구 등을 집중 조사 중에 있다.

이를 통해 대상자를 발굴해 긴급지원, 기초생활보장제도, 민간후원 등 공공·민간지원으로 연계하고 있으

며, 시민들을 대상으로 현수막 게시, 대형 전광판 게시 등 다양한 홍보에 나서고 있다.

또 갑작스럽게 위기상황에 처했으나 제도를 알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시민들을 위해 관내 도심공원을 찾아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발굴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밖에도 역·터미널 주변, 교각 아래, 폐가 컨테이너 등에서 생활하는 대상자를 찾아 나서고,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을 활용한 위기가구 예측시스템을 가동하여 위기 사유별 선제적 예방활동도 펼치고 있다.

/군산=문정곤기자

익산시, 법무부 '법질서 유공' 부분 기관표창 수상

익산시는 올해 법무부 평가 법질서 유공 부분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2016년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셉테드 CPTED) 기관표창을 받았다.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은 법무부가 국토교통부, 국민안전처와 함께 2014년부터 시행 중인 사업이다.

지난 7월 법무부에서 주관한 범죄예방 환경 개선사업에 익산시에서는 북일초등학교를 비롯한 신동 일대가 선정됐다. 시는 그동안 법무부와 함께 안전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힘써왔다.

관련부서와 기관협의 등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CCTV, 안심벨, 열로가넷, 담장벽화, 가로등 보도

건축도시공간연구소, 형사정책연구원 등 관련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업해 신동 일원을 밝고 안전하고 걷고 싶은 지역으로 만들었다. 이와 함께 신동지역의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해 범죄취약지역 환경개선사업을 포함한 '법질서 실천운동'에 적극 협조했다.

또한 시는 법무부의 범죄예방환경개선 사업 실시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셉테드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왔다.

관련부서와 기관협의 등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CCTV, 안심벨, 열로가넷, 담장벽화, 가로등 보도

장비, 노면도색 등 물리적 환경 개선은 물론 주민 법 교육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사업 내용에 적극 반영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지속가능한 도시경관과 공공디자인을 조성하고 범죄예방환경 디자인 구축을 위해 법무부, 국책연구기관인 건축도시공간연구소, 형사정책연구원 등 관련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라며 "익산시 신동 일원을 밝고 안전하고 걷고 싶은 지역으로 만드는 데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정양원기자



하림, 닭고기 소비촉진 위해
익산 행복나눔마켓에 생닭 5만 마리 기증

익산의 향토 기업 (주) 하림(대표 이사 이문용)이 시로 인해 소비 위축세를 보이고 있는 닭고기의 시중관매를 촉진시키고자 사)한국육계협회와 닭고기 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 기증된 생닭 5만 마리(1억3천만 원 상당)를 익산 익산 행복나눔마켓·뱅크에 기탁했다.

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닭고기 나눔 행사를 가졌다. 이날 기탁된 생닭은 익산시 사회복지시설을 비롯하여 저소득 가정, 전북지역 푸드뱅크와 사회복지시설에 지원됐다.

/익산=정양원기자

군산경찰서, '성폭력 집중신고기간' 운영

군산경찰서(서장 김동봉)가 연말연시를 맞아 성폭력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성폭력 근절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성폭력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러한 성폭력집중신고기간 운영은 연말연시 잦은 술자리로 인한 성폭력 범죄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추진되며, 신고기간은 내년 1월 31일까지이다.

이를 위해 군산경찰은 홈페이지에 안전DREAM(신고·상담센터)를 개설·운영하여 익명으로 신고 및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김동봉 군산경찰서장은 "성폭력 피해를 입었거나 목격할 경우 112 또는 인터넷 안전DREAM(신고·상담센터)을 통해 또 다른 범죄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군산=문정곤기자

세만금 수질개선사업
군산시 최우수기관 선정 포상금 1000만원

군산시가 2016년 세만금 수질개선사업 시군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기관표창과 함께 포상금 1000만원을 수상했다.

이러한 수질개선사업 평가는 새만금 수질개선 및 목표수질 달성을 위해 각 시군의 적극적인 하수도 사업 추진을 유도하고 새만금로 수질개선을 위해 기술인 다양한 노력에 대한 평가이다. 이번 평가에서 군산시는 하수도와 환경정책과가 부사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통해 가축분뇨 배출대상 법령준수와 홍보 및 교육, 생활수의 적정처리 방류 등 새만금유역 수질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군산=문정곤기자

군산시, 행복학습센터 운영 사업 성료

군산시가 시민의 근거리 학습권 보장과 찾아가는 평생교육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행복학습센터 교육과정 이 큰 호응과 관심 속에 마무리 됐다.

이 사업은 군산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하나인 '행복학습센터 운영사업'으로 교육부에서 주관하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담당하는 사업이다.

올해 군산행복학습센터는 신도심, 원도심, 농촌, 어촌지역 등 다양한 지역에서 경력단절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매듭공예(심리치료, 지역자원을 활용한 스마트폰 동영상 만들기, 건강관리를 위한 생활체조 교육과정 등 지역 실정에 맞는 35개의 맞춤형 교육으로 진행됐다.

시는 내년에도 1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지역 평생교육활성화 및 시민의 근거리 학습권 기회확대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성봉 인재양성과장은 "앞으로도 지역 맞춤형 교육과정을 적극 발굴하여 군산시민의 평생학습 참여율을 높이고 학습형 일자리 창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산=문정곤기자